

〈제 739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토종 가맹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출상품 출시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광주광역시에 가맹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토종 가맹점주 및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의 지원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 본부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이며, 광주신용보증

재단이 보증하는 전액보증서 담보대출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지역 경제를 잠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은행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후 공부방 개선 및 초등학생 돌봄지도'를 위한 업무 협약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부방 개선 및 초등학생 돌봄지도'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매년 광주전남 10곳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고, 대학생 고용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학습 돌봄지도 등의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초등학생 돌봄사업이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영어 키즈클럽 '프로맘 킨더' 리뉴얼 오픈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VIB족(매우 소중한 어린이 · Very Important Baby)’을 겨냥한 회원제 영어 키즈클럽인 ‘프로맘 킨더’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본관 9층에 자리한 ‘프로맘 킨더’는 멤버십 회원으로 운영되는 놀이학교 형식의 영어 키즈 클럽이다.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에듀테인먼트 기능에 영어까지 더해 교육에 관심이 많은 ‘키즈맘’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며 “이번 리뉴얼 오픈으로 차별화된 유 · 아동집객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 고객과 키즈맘 모시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과 ‘Give U(기부)’ 캠페인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21일 광주 서구와 ‘Give U(기부)’ 캠페인을 개최하고 의류와 잡화 등 총 2천여 품목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Give U 캠페인은 광주신세계 임직원들과 서구 공무원들이 입지 않는 의류와 잡화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면, 재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이정현 위원장 초청 정책세미나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는 최근 본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에서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 위원장을 초청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촉진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능형 기반의 지방혁신 등 전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맞는 우리 지역 지능화 기술기반의 지방혁신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타오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가 폭스바겐의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타오스에 신차용 타이어로 크루젠 HP71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타오스 모델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 크루젠 HP71 제품은 프리미엄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고무화합물)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다. 또, 와이드 그루브 설계를 통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력, 조종 안정성과 제동 성능을 높였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이번 폭스바겐 타오스 OE공급은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본 공급 기회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해양조

◆환경의 달 맞아 'ESG 활동'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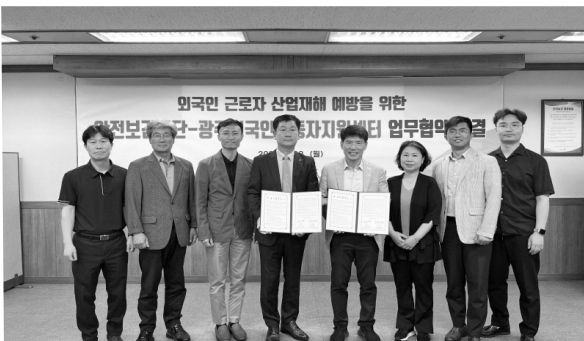
보해양조(임지선 대표이사)는 보해소주의 핵심 원료인 소금이 나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스몰 액션(SMALLACTION)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지난 5월에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플로깅(plogging)을 알리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최근 이곳에 방문한 광주 지역 달리기 동호회 ‘BGRC(BITGOEULRUNNING CREW)’ 회원 30여명은

약 1시간 동안 동명동 일대를 누비며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날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도 50리터(ℓ)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플로깅에 참여하는 등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의 참여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는 누구나 간편하게 플로깅 체험이 가능하며 오는 7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는 19일 광주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감축 및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증가에 대비, 선제적인 안전보건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대한 역량 자원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 인식 개선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김무영 본부장)는 “전체 사고사망자는 조금씩 줄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 평균 전체사고사망자의 10%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한맥 생맥주 출시



오비맥주는 한맥 생맥주를 이달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맥 생맥주인 ‘더블 스무스 드래프트’는 한맥 본연의 부드러움에 갓 만든 생맥주의 신선함이 더해져 차별화된 풍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맥 생맥주는 이달부터 골프장과 특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백주환 오비맥주 홍보이사는 “한맥은 지난 3월 ‘대한민국을 더 부드럽게’라는 슬로건 아래 거품 지속력과 부드러운 묵념김을 업그레이드해 리뉴얼 출시했다”면서 “최근 세계적 권위의 ‘2023 iTi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국제 우수 미각상’ 최고 등급인 3스타를 획득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품평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재)록수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원 전달



해양에너지(정회 대표이사)는 20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열린 장학기금 기탁식에서 재단법인 록수장학회(이사장 김봉길)에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위한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록수장학회 설립허가 당시 2000만원 출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차례 총 1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40명의 소방공무원 자녀를 선발해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에너지(정회 대표이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소방관 자녀들의 미래를 밝히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해양에너지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광주시의 안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1천만원 상당 구매..."지역민 여가문화 활성화"



해양에너지(정회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및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와 임직원 및 지역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광주디자인진흥원 이사장),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구매한 입장권은 임직원과 지역민들에게 전달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에너지(정회 대표이사)는 “물 흐르듯 자유롭고 지역민들이 치유 받는 전시가 되길 기원한다”며, “해양에너지도 내년 비엔날레는 회사 순찰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09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인간과 우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 강사 : 이영욱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

1609회 금요조찬포럼은 이영욱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인간과 우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주제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였다.

과학은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진정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진실보다 내가 원하는게 진실이기를 바라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싫더라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과학은 모든 판단을 증거로써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치, 종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각을 못 바꿉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선 우주를 알아야합니다. 우리의 DNA는 탄소, 질소, 산소 등이 필요합니다. 빅뱅직후 우주를 보면 76%는 수소, 24%는 헬륨입니다. DNA를 구성하기 위한 원자가 우주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원자번호 1번은 수소이고, 2번은 헬륨입니다. 인간의 재료가 되는 탄소나 질소, 산소는 빅뱅 직후에는 없었습니다.

가장먼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별이 태어나고 그 별이 수명을 다하면서 사라집니다. 우리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년인데 이미 50억년을 살았습니다. 질량이 무거운 별일수록 빠르게 소멸됩니다. 태어나서 불과 100만년 1,000만년만에 소멸하는 별도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지만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만에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는 수소핵융합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소 4개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3개가 탄소가 됩니다. 바로 그 탄소가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원소가 됩니다. 우리도 태초에는 뜨거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약 100년을 살아갑니다.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140억년 역사가 우리 자신의 역사입니다. 매미가 땅속에서 7년 이상 굶뎠이로 살다가 성충으로 사는 시간은 2주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140억년 동안에 살아오다 지금 생명체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이 역사에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일지(06.19 ~ 06.23)

06.21 (수)	● 산학협동포럼	06.23 (금)	● 1609회 금요조찬 포럼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	--------------	--------------------------------

1. 경제 동향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발표 (6.21)

○ 2023년 1/4분기말 기업대출은 1,77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

※ 대기업 기업대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7.8('22.1q)→ 11.1(2q)→ 15.6(3q)→ 18.5(4q)→ 16.7('23.1q)

※ 중소기업 기업대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16.0('22.1q)→ 16.2(2q)→ 15.0(3q)→ 12.6(4q)→ 9.3('23.1q)

- (기업규모별) 대기업대출(258.9조원,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은 운전자금 수요로 인해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22.4분기 18.5%→ '23.1분기 16.7%). 반면, 중소기업대출(1,513.2조원, 전년동기대비 9.3% 증가)은 부동산 경기 둔화,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모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됨('22.4분기 12.6%→ '23.1분기 9.3%).

○ 2022년말 기준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82.9%로 2021년말(80.6%) 대비 2.3%p 상승했고, 2022년중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5.1배로 2021년(8.7배) 대비 하락

-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대기업('21년말 13.2%→'22년말 13.4%)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21년말 18.6%→'22년말 15.6%)은 하락

-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21년 9.2배→'22년 5.4배)과 중소기업('21년 2.9배→'22년 2.1배) 모두 하락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2021년말 36.0%에서 2022년 36.4%로 소폭 상승

-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대기업('21년말 22.9%→ '22년말 23.0%)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21년말 47.8%→ '22년말 49.2%)은 상승

Ⅲ. 노동경제동향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 (6.20)

○ 2023년 1분기 외감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이 모두 악화

* 21,042개(제조업 10,858개 + 비제조업 10,184개)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 (성장성) 2023년 1분기 매출액증가율은 0.4%(전년동기대비 기준)로 2022년 4분기(6.9%)보다 증가 폭이 6.5%p 축소되었고, 2023년 1분기 총자산증가율은 1.9%(전기말대비 기준)로 2022년 1분기(3.7%)보다 증가 폭이 1.8%p 축소.

- (수익성) 2023년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8%로 2022년 1분기(6.3%)보다 3.5%p 축소되었고, 2023년 1분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5.0%로 2022년 1분기(8.1%)보다 3.1%p 축소

- (안정성) 2023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95.0%로 2022년 4분기말(92.1%)에 비해 2.9%p 상승했고, 2023년 1분기 차입금의존도**는 26.0%로 2022년 4분기(25.3%)에 비해 0.7%p 상승.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

○ 매출액증가율은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되었고 중소기업은 하락 전환.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하락 전환했고, 비제조업은 증가 폭이 축소

- 2023년 1분기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은 0.7%(전년동기대비 기준)로 2022년 4분기(7.5%)보다 상승 폭이 축소. 중소기업매출액증가율은하락전환('22년4분기4.3%→'23년1분기△1.2%)

- 2023년 1분기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하락 전환('22년 4분기 2.6%→'23년 1분기 △2.1%)했고, 비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3.6%로 2022년 4분기(12.6%)보다 증가 폭이 축소

◆ IMD,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6.20)

Ⅲ. 노동경제동향

-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로 전년(27위)대비 1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 추이 : 28위('19)→ 23위('20)→ 23위('21)→ 27위('22)→ 28위('23)

<2023년 주요국 국가경쟁력 순위>

구분	싱가폴	스위스	홍콩	미국	독일	영국	중국	한국	프랑스	일본
2023	4위	3위	7위	9위	22위	29위	21위	28위	33위	35위
2022	3위	2위	5위	10위	15위	23위	17위	27위	28위	34위

<2023년 주요국 국가경쟁력 순위>

- 우리나라의 4대 평가분야 순위를 전년과 비교해보면, 경제성과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정부효율성은 순위가 하락
 - 경제성과(22위→14위) 분야는 국제무역에서 순위가 하락했으나,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에서 순위가 상승하여 전년보다 8단계 상승
 - 인프라(16위→16위) 분야는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에서 순위가 하락했으나,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에서는 순위가 상승하여 전체 인프라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
 - 정부효율성(36위→38위)분야는 사회여건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재정·제도여건·기업 여건에서 순위가 하락
 - 기업효율성(33위→33위) 분야는 생산성·금융 순위는 하락한 반면, 노동시장, 경영관행, 태도·가치에서 순위가 상승하여 전체 기업효율성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
- 특히, 기업효율성 분야 중 노동시장 부문은 39위를 기록하여 전년(42위)에 비해 3단계 상승.

Ⅲ. 노동경제동향

- 경제활동인구 장기 증가율(21위→16위), 사내 직업훈련 우선순위도(34위→23위), 인재유치 우선순위도(18위→14위) 등 상승

◆ 기획재정부,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6.20)

○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총투자액 기준)은 164.9억달러로 전년동기(282.4억달러) 대비 41.6% 감소

※ 분기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억달러) : 282.4('22.1q)→198.4(2q)→177.4(3q)→148.7(4q)→164.9('23.1q)

- (업종별) 광업(15.1%), 도매 및 소매업(32.9%) 등 업종은 증가했고, 금융보험업(△20.1%), 제조업(△52.4%), 부동산업(△71.1%) 등 주요 업종은 감소

- (지역별) 북미(△1.6%), 유럽(△61.4%), 아시아(△74.3%) 등 아프리카(25.8%)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

◆ 한국은행, 「202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6.21)

○ 202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물(1.5%),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0.6%) 등이 올랐으나 공산품(△0.8%)이 내려 전월대비 0.3% 하락(전년동월대비 0.6% 상승)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월비) : 0.4('23.1)→ 0.2(2)→ 0.1(3)→ △0.1(4)→ △0.3(5)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5.1('23.1)→ 4.8(2)→ 3.3(3)→ 1.6(4)→ 0.6(5)

※ 생산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 폭은 2021년 1월(0.9%)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물) 축산물(3.1%), 수산물(1.2%), 농산물(0.3%)이 모두 올라 전월대비 1.5% 상승(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6.3%), 화학제품(△1.1%), 제1차 금속제품(△0.8%) 등이 내려 전월대비 0.8% 하락(전년동월대비 3.2% 하락)

Ⅲ. 노동경제동향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전력(3.1%) 등이 올라 전월대비 0.6% 상승(전년동월대비 21.1% 상승)
 -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3%) 등이 올랐으나 운송서비스(Δ 0.3%) 등이 내려 전월 대비 보합(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2023년 5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1.4% 하락), 총산 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전년동월대비 2.0% 하락)
- *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2. 노사 동향

◆ 대법원이 노조의 불법징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경영계는 대법원에 공정한 법 해석과 적용 요구

- 대법원은 지난 6. 15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위법 징의행위에 대해 ‘개별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 양 노총은 대법원이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 요구
 - 한편, 고용부는 금번 대법원 판결이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
- 대법원은 6. 19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책임제한 비율을 개별화한 것으로 기존 판결법리를 징의행위에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 표명
-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6. 20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법원에 공정한 법 해석과 적용 촉구
 - * 경제 6단체 :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 경제 6단체는 금번 대법원 판결이 ‘불법징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
 - 또한,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금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

◆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7월 총파업 준비 본격화

- 민주노총이 7. 3~15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해 시간제한 등 부분금지 통고

Ⅲ. 노동경제동향

*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과 관련해 서울 종로 경찰서 등에 27건의 집회 신고 접수

- 경찰은 출·퇴근 시간을 반영해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5시로 제한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6. 20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경찰 당국이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를 남발한다고 주장

○ 한편,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산별노조*는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일정에 맞춰 쟁의권 확보 시도(상세 내용은 10~14페이지 첨부내용** 참조)

* 주요 산별노조 총파업 일정 : 금속노조(7. 12, 주야 2시간), 보건의료노조(7. 13~14)

** 양 노총 주요 산별 노조 2023년 임단협 및 투쟁계획 보고

- 금속노조는 6. 20 2023년 산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6. 30 쟁의조정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

- 보건의료노조는 6. 27 전 지부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

◆ 2024년 최저임금 심의는 난항 지속

○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 중인 가운데 6. 20 개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노사 이견 지속

-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에 대해 최저임금의 하향식 감액 적용이라고 주장

- 반면, 경총은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업종별 최대 33.8% 미만을 격차 등), ▲해외사례(OECD 19개국에서 연령, 업종 등에 따라 구분 적용)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강조

○ 양 노총은 6. 22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4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 양 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된 시급 12,210원(월 209 시간기준 2,551,890원)을 요구

Ⅲ. 노동경제동향

- 한편, 고용부가 6. 21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 제정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발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 6. 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 고용부는 ‘해당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흥기로 대항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최임위 위원으로 부적합하다 판단하고 법에 따라 해촉 제정했다’는 입장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올해 임단협에서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의 쟁점화 전망

- 2023년 임단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를 둘러싼 노사갈등 우려

-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별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2023년 임단협 요구안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포함

- 한편, 한국노총은 6. 19~6. 30 소속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정책교섭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주요 항목 : ① 정년제도 및 임금피크제 실태, ② 정년 이후 재고용 현황, ③ 임금 체계와 배치전환, ④ 법적 정년 추가 연장과 노조 대응전략 등

-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다양한 옵션(정년연장, 정년 폐지, 촉탁직 등을 통한 재고용 등)을 부여하는 ‘한국형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연계할 것이라고 주장

-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년연장 정책 교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업종별·직종별 분석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